

지난해 수입 전기차 판매 2만대 돌파

2만4168대 중 테슬라 1만7828대 '독보적'...아우디·벤츠 등 세 자릿수 성장

수입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처음으로 2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 브랜드들이 전기차 신규 모델을 선보이는 등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난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한 해 동안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 전기차는 총 2만4168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만5183대가 팔린 것과 비교해 59.18%(8985대)나 증가한 것이다.

수입차 브랜드의 전기차의 한 해 판매량이 2만대를 넘은 이력이 처음이다. 특히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가 집계한 것에 따르면 작년 1년간 신규 등록된 전기차 총 10만402대로, 지난해 판매된 전기차의 24.07%는 수입 전기차였던 셈이다. 쉽게 작년 팔린 전기차 4대 중 1대는 수입차 브랜드라는 얘기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시장에서의 수입 전기차 판매가 처음 2만대를 돌파했다. 수입차 브랜드들이 신규 전기차 모델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수입 전기차 판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메르세데스-벤츠가 지난달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한 럭셔리 전기 세단 더 뉴 EQS.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공>

수입 전기차의 판매 성장세는 테슬라가 독보적이었으나,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한 다른 수입차 브랜드의 전기차 성장 역시 돋보였다.

우선 테슬라는 지난해 총 1만7828대를 판매해 전체 수입 전기차 판매량의 73.8%를 차지했고, 판매량 역시 전년 1만1826대보다 50.75% 늘었다.

모델별로 보면 테슬라 모델 3는 8898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모델 Y는 8891대로 2위에 올랐다.

테슬라를 빼놓고 보면 아우디가 전년 601대에서 1553대로 158.4%(952대)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가 재작년 608대에서 지난해 1363대로 124.18%(755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수입차 브랜드 모두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세를 기록한 것이다.

아우디는 전기차 모델이 'e-트론 50 콤팩트' 밖에 없었지만 지난해 'e-트론 50 콤팩트'와 'e-트론 GT 콤팩트', 'e-트론 스포츠백 50 콤팩트', 'e-트론 스포츠백 55 콤팩트' 등 새로운 모델을 연달아

출시하면서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지난해 7월 컴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더 뉴 EQA 250'를 새롭게 선보였고, 출시 6개월 만에 886대가 판매되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앞서 2020년 출시한 'EQC 400 4매틱(MATIC)'도 341대 판매됐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고객 인도가 이뤄지고 있는 벤츠의 럭셔리 전기 세단 '더 뉴 EQS'도 벌써 136대가 판매되기도 했다.

수입 전기차의 국내 판매가 작년 처음 2만대를 돌파한 가운데 올해 역시 수입차 브랜드가 전기차

신규 모델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 국내 자동차시장에서의 수입 전기차 판매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메르세데스-벤츠가 E 클래스의 전기차 버전인 'EQE'와 컴팩트 전기 SUV 'EQB', 고성능 브랜드 AMG의 순수전기차 'AMG EQS'를 올해 중 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 상반기 BMW가 전기 쿠페 'i4'를, 폭스바겐은 첫 순수 전기 SUV 모델 ID.4를 선보이며 아우디도 하반기 브랜드 최초 컴팩트 순수 전기 SUV 'Q4 e-트론'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국내 SUV 최고 복합연비 달성 기아 신형 '니로' 사전계약 돌입

기아가 이달 출시하는 '디 올 뉴 기아 니로'(The all-new Kia Niro·사진)의 주요 사양을 공개함과 동시에 18일부터 사전계약에 돌입한다.

17일 기아에 따르면 신형 니로는 2016년 1세대 출시 이후 새롭게 선보이는 2세대 모델이다.

친환경(하이브리드) 전용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3세대 플랫폼으로 넓어진 공간과 향상된 주행 안전성을 비롯해 개선된 파워트레인 탑재로 국내 SUV 중 가장 높은 복합연비를 달성한 게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이밖에 환경친화적인 소재와 기술을 적용했고,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및 편의사양도 돋보인다.

신형 니로는 전장이 4040mm로 기존 모델보다 65mm가 더 길어졌고, 축간거리와 전폭은 기존보다 20mm 늘어난 각각 2720mm, 1825mm다. 전고도 10mm 늘어난 1545mm로 차체는 물론, 실내공간이 넓어졌다.

트렁크 적재용량도 451ℓ로 기존 모델에 비해 15ℓ 넓어져 넉넉해졌고, 2열 시트를 접을 경우 평평한 구성(폴 플랫)도 가능하다.

고강성 경량 차체, 전방 다중공격 시스템 등으로 충돌 안전성을 확보했고, 핸들링과 정숙성, 제동 성능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는 게 기아의 설명이다.

최고 출력 105마력에 최대 토크 14.7kgf·m의 '스마트스트림 G1.6 하이브리드 엔진'에 최고 출력 32kW, 최대 토크 170N·m의 모터가 탑재됐다.

이밖에 2세대 6단 DCT(더블 클러치 변속기)를 장착했고, 향상된 공력 성능 등으로 국내 SUV 중 가장 높은 복합연비인 20.8km/ℓ를 달성했다.

특히 천장에는 페플라스틱 재활용 소재가 함유된 섬유를 사용했고, 윈도 스위치 패널에는 BTX(벤젠·톨루엔·자일렌)가 첨가되지 않은 친환경 페인트를 썼다. 또 바이오 인조가죽 시트와 유칼립투스잎 추출 원료로 만든 섬유를 각각 활용하는 등 친환경 소재와 기술이 적용됐다.

국내 최초로 대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그린존 주변 도로에 진입했을 때 전기 모드 주행을 확대하는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 2세대'가 국내 최초로 적용됐으며, 회생 제동량 조절과 정차까지 가능하게 하는 '회생 제동 컨트롤 패들 슈프트'와 교통 정보를 활용해 회생 제동량을 자동 조절하는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도 적용됐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ISLA), 안전 하차 보조(SEA),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등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과 함께 '디지털 키 2 터치', '빌트인 캠', '서버 기반 AI 음성인식 시스템' 등 편의사양도 확대됐다.

신형 니로의 사전계약은 트랜디(2660만원), 프레스티지(2895만원), 시그니처(3306만원) 등 하이브리드 모델 3개 트림으로 진행하며, 기아는 사전계약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헤드업 디스플레이 무료 장착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 EV6 '수입차보다 멀리 간다'...전기차 실주행거리 1위

영국 車전문 유튜브 채널 평가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사진)가 영국의 유명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이 진행한 전기차 실주행거리 비교평가에서 외국 유명 브랜드 전기차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1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구독자 수 662만여명의 카와우(Carwow)는 최근 '방전될 때까지 전기차를 달리기'(We drove these electric cars until they DIED!)라는 제목의 전기차 실주행거리 비교 콘텐츠를 진행했다.

비교 대상 차량은 EV6와 현대차 아이오닉 5, 포드 머스탱 마하-E, 아우디 Q4 e-트론, BMW iX 3, 스코다 엔야크 iV 등 6개 모델이었다. 평가는 이들 차량을 완전히 충전해 동시에 출발시킨 뒤 완전 방전돼 스스로 멈출 때까지 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77.4kWh 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사루군

동(AWD) 모델 EV6가 가장 늦게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됐다. 주행거리는 439km였다. 영국에서의 공식 인증 주행거리(482km) 대비 달성률은 91.1%로 가장 높았고, 배터리 1kWh당 달릴 수 있는 거리를 나타내는 전비도 5.9km/kWh로 제일 높았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먼저 탈락한 모델은 포드 머스탱 마하-E였다. 배터리 용량이 75.7kWh로 EV6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았지만,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되면서 366km를 달렸다. 인증 주행거리(439km) 대비 달성률은 83.4%였다.

두 번째로는 아우디 Q4 e-트론이 멈췄다. Q4 e-트론은 평가 차량 가운데 가장 용량이 큰 82kWh 배터리를 탑재했고 인증 주행거리가 479km였지만 이번 평가에서 달린 거리는 376km로 인증 주행거리 달성률은 78.5%에 그쳤다.

이어 현대차 아이오닉 5가 381km를 달린 뒤 멈췄다. 이는 인증 주행거리(458km) 대비 83.2%였다. 다만 탑재 배터리 용량은 비교 차종 중 가장 작은



72.6kWh였다.

네 번째로 멈춰선 모델은 BMW iX3였다. 인증 주행거리(457km)의 90.6%인 414km를 달렸다.

EV6와 마지막까지 경쟁한 모델은 스코다 엔야크 iV였다. 인증 주행거리는 비교 테스트 모델 중 가장 긴 487km지만 실주행거리는 424km로 달성률은 87.1%로 기록됐다.

/연합뉴스

'불매운동 타격' 일본차 판매 회복세

토요타 등 전년비 13.4% 늘어

불매운동으로 판매가 줄었던 일본 자동차 브랜드 판매가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중인 6개 일본차 브랜드(토요타·렉서스·혼다·마쓰다·스즈키·다이하쓰)의 승용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전년 대비 13.4% 증가한 2만680대로 집계됐다.

그 중에서 렉서스는 전년(8911대)보다 9.4% 증가한 9752대로 가장 많은 판매를 보였고, 토요타는 같은 기간 6154대에서 6441대로 4.7% 증가했다. 이밖에 혼다는 3056대에서 4335대로

42.5% 늘었다.

렉서스의 경우 대표 모델인 하이브리드차 '더 뉴 ES300h'가 6746대가 판매됐다. 최근 친환경차의 인기로 하이브리드차 모델을 찾는 소비자 수가 많아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국내 브랜드의 출고 지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차 브랜드의 경우 다소 출고가 빠르다는 점도 판매량 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차 브랜드는 2019년 6월부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 2020년 판매가 50% 이상 감소하는 등 판매 부진을 겪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